

영산성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구발표 및 공청회

영산성지공동체 기획연구팀

목 차

1. 식순 3
2. 경과보고 4
3. 발표1(기본 방향과 정관평 권역의 현황) 7
 - 1) 기본방향 8
 - 2) 정관평 권역의 현황 11
4. 발표 2(영산성지공동체교육 순례 훈련의 기본방향) 18
 - 1) 교육순례훈련분과의 논의 범주 19
 - 2) 공동체 논의 과정에 대한 우려 20
 - 3) 영산 성지의 위상에 관한 의견 집약 23
 - 4) 본 분과 주제에 관한 의견 정리 24
5. 발표 3(영산성지공동체정관평 생태환경의 기본방향) 29
 - 1) 길룡리에 생태 공동체의 방향은? 30
 - 2) 길룡리 마을 공동체의 이해 31
 - 3) "길룡리 마을 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37
 - 4) 생태 농업의 방향 39
 - 5) 유기농산물의 유통 42
 - 6) 정관평 생태농업의 고려사항 49
 - 7)참고할 교단내 생태농업의 과거와 현재 50
6. 영산성지공동체설문조사 결과 분석 51

영산성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구발표 및 공청회

- ❖ 개식
- ❖ 입정
- ❖ 심고
- ❖ 경과보고
- ❖ 인사
(교화부원장)

- ❖ 연구발표
 - 발표1 (차운재 교무)
 - 발표2 (김경일 교무)
 - 발표3 (김선명 교무)
 - 발표4 (한창민 교무)
- ❖ 종합토론 및 공청회

경과보고

1. 89-91년도 교정핵심정책 실천사항으로 지정(정관평 권역화)
2. 89년 4월, 6월, 유관 기관 방문 의견수렴(출장소, 영산대)
3. 89년 8월 유관기관 및 영산성지공동체 관심인사 모임(영산성지 성래원)
 - 영산성지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기초방향 논의
 - 영산성지 신앙수행공동체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구성 결의
4. 89년 9월 21일 출가교화단 총단회 교정보고사항으로 보고
 - 추진의 이념과 기초방향
 - 추진의 연구방향성(5개 방향)
5. 89년 11월 18일 기초추진위원 선정과 1차 협의 모임(소회의실)
 - 추진배경 설명 및 다양한 의견개진
 - 영산성지 현장성과 현황파악의 필요성 제기
 - 공동체와 영산성지 보존과 현황에 대한 발제의 필요성제기
6. 89년 11월 25일 기초추진위원 현황파악을 위한 각 기관 방문
 - 영산출장소, 영산대, 영산교당을 방문하여 현황 파악
 - 성지사업회 회장

경과보고

7. 원기 89년 11월 30일 기초추진위원 2차 협의 모임(영산성지 성래원)

- 공동체에 대한 발제(한창민 교무)
- 성지보존(박윤철 교무), 지적현황(서문성 교무),
- 영산성지 신앙수행공동체 명칭에 대한 제고
- 추진을 위한 위원선정에 관한 의견협의


8. 원기 89년 12월 15일 기초추진위원 3차 협의 모임(중앙총부 소회의실)

- 명칭협의 ‘영산성지공동체’로 잠정협의
- 방향성 협의
영산성지를 교단의 근원성지로 보존해 가고,
원불교 정신을 구현하는 삶의 모습을 체험하는 도량으로 만든다
- 연구기획위원 확정(13명)
- 차기일정과 과제 협의

9. 영산성지 공동체 모임(90. 1 10) 소회의실(활동계획협의 및 분과선정)

경과보고

10. 영산성지 공동체 모임(90. 2. 14) 흥동마을, 치명자산 (분과별 활동계획)
11. 영산성지 공동체 분과별 모임(90. 3. 1) 소회의실, 상담실
12. 영산성지 공동체 교육순례분과 모임(90. 3. 25)소회의실
13. 영산성지 공동체 환경생태분과 모임(90. 3. 28)소회의실
14. 영산성지 공동체 환경생태분과 모임(90. 4. 10)소회의실
15. 영산성지 공동체 교육순례분과 모임(90. 4. 11)중도훈련원 회화실
16. 영산성지 공동체 환경생태분과 모임(90. 4. 28)소회의실
17. 영산성지 공동체 교육순례분과 모임(90. 4. 29)영광다원
18. 영산성지 공동체 연구기획팀 전체 모임(90. 5. 30)소회의실
19. 영산성지 공동체 연구기획팀 전체 모임(90. 6. 14)소회의실
20. 영산성지 공동체 연구발표 및 공청회(90. 6. 29)소회의실



<발표1>

영산성지공동체의 기본 방향과 정관평 권역의 현황

발표자: 차 윤 재 교무 (교화연구소)

기본방향

1. 영산성지는

- 우리 교단만대의 근원성지이다
- 초기교단 관련 비중이 절대적이다
- 많은 수의 비신자들이 찾고 있다
- 지자체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 원불교를 알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순례하고 싶은 성지가 될 것이다

2. 공동체는

-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 공동체는 인생의 의미추구와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 공동체는 무엇을 공유하고 함께 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다
- 공동체의 핵심은 더불어 산다는 것이다
 곧 둘이면서 하나되어 사는것

3. 영산성지 공동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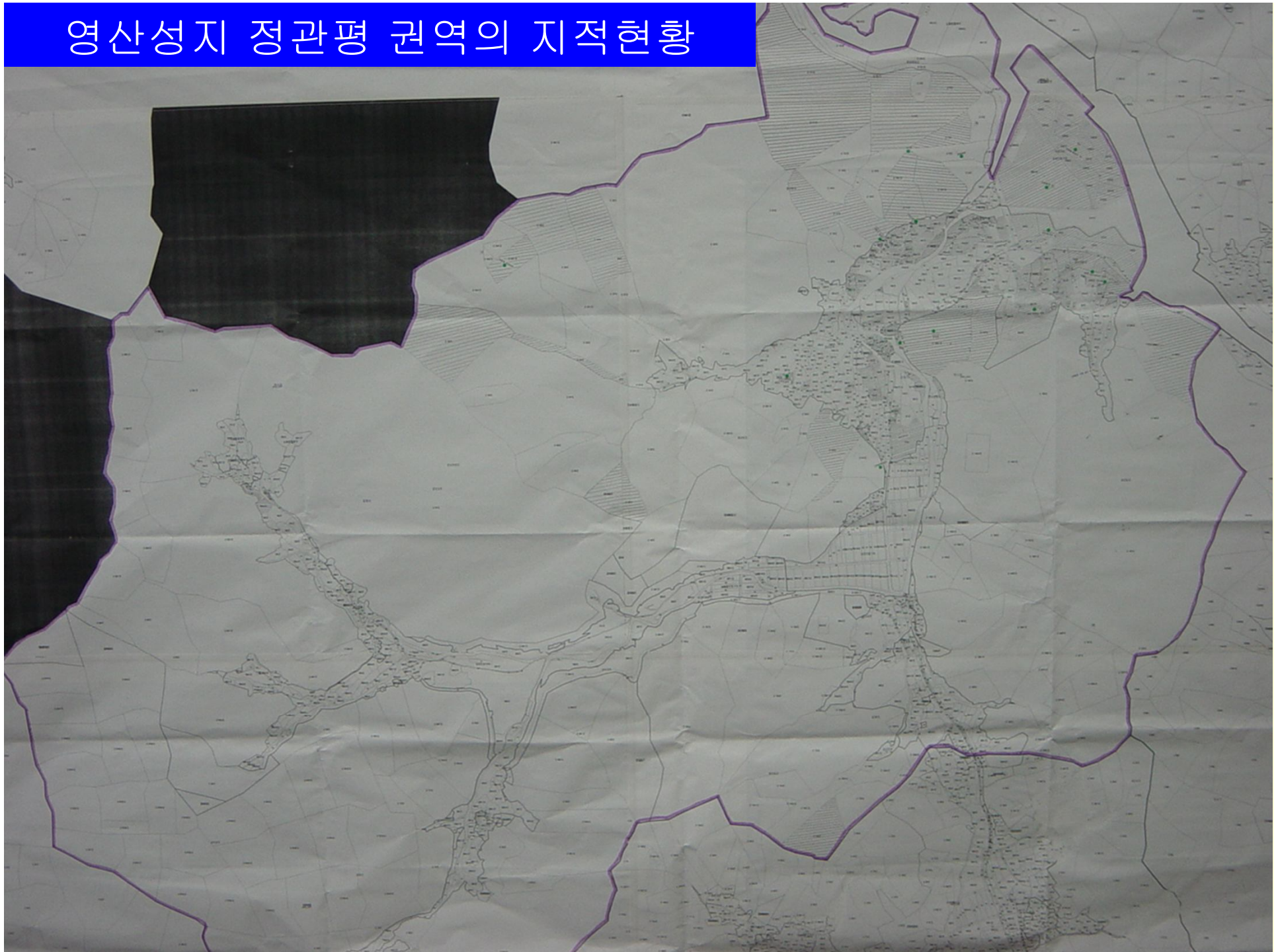
-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으로 출발하여 그 진리를 믿어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구성되었다
- 교단은 개교 동기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공동체이다
- 영산성지공동체의 방향은 낙원공동체 구현이다
 - 신앙수행 공동체적인 측면
마음공부와 훈련으로 정신을 개혁시키고 기질을 변화
 - 지역 공동체적인 측면
이웃과 함께 창조적인 삶을 일구어 가는 마을공동체
 - 생태 공동체적인 측면
건강한 먹을 거리와 생태계를 보살피는 삶의 추구

정관평 권역의 현황

1) 성적지 현황

-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의 출생과 성장으로부터 대각에 이르기 까지 종교적 행적과 관련 깊은 유적
(탄생가, 삼발재 마당바위, 선진포 입정터, 노루목 대각터 등)
- 대각 이후에 소태산 대종사의 초기교화 과정을 보여주는 유적
(이씨제각, 정관평, 구간도실, 제명바위, 각 기도봉 등)
- 첫 제자인 9인 제자의 생가 또는 그 터들
(초기교단 신앙공동체 형성의 상징적 인물들의 유적)
- 교단 삼대사업 가운데 하나인 교육관련 초기유적
(영산학원 초기교육시설, 성지고 초기교육시설 등)
-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와 대각, 초기 교화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역사유적과, 지역사회 동향을 알려주는 역사유적
(동학과 증산 및 의병관련)
- 구도와 대각 등 초기포교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종교문화유적
(사찰과 암자, 탑 등)

영산성지 정관평 권역의 지적현황



영산성지 정관평 권역의 지적현황



3)토지소유 현황

총 361,750평

- ❖ 전 : 44,000평
- ❖ 답 : 19,000평
- ❖ 대지 : 17,500평
- ❖ 임야 : 8,600평
- ❖ 도로 : 1,700평
- ❖ 하천 : 152,000평
- ❖ 잡종 : 1,800평
- ❖ 유희 : 4,400평
- ❖ 학교 : 112,750평

3) 정관평권역 기관

- ❖ 영산사무소
- ❖ 영산선학대학교
- ❖ 영산성지고등학교
- ❖ 원불교 영산교당

4) 영산사무소 현황

❖ 임직원(총: 13명)

출가-남: 3명, 여: 3명 재가-남: 3명, 여: 4명

❖ 토지

* 논 : 40600평

1방언-24,000평 마을사람 소작(총부교금)

2방언-16,600평 영산선학대 소유(임대)

* 밭 : 4000평 자작과 소작

* 하천 : 1,065평

* 잡종 : 210평

* 임야 : 264,153평

* 도로 : 1807평

4) 영산사무소 현황

❖ 시설 및 장비

* 시설

창고 2동 50평, 우사 1동 70평, 돈사 1동 80평
하우스 연동 600평, 퇴비사 1동 50평, 기계실 1동 20평

* 장비

트랙터 2대, 콤바인 1대, 이앙기 1대, 도정기 1대, 포크레인 1대
베일러 1대. 모아기 1대, 트럭 1대, 정비장구 다수 등

❖ 건물

- * 산업부(9채)-연건평 420평
- * 사무소(18채)- 연건평 716평

<발표2>

영산성지공동체 교육 순례 훈련의 기본방향

--영산성지 공동체 구상--

발표자: 김 경 일 교무 (문화교당)

<분과 연구위원>

김경일(문화교당 대표집필) 서문성(교화훈련부) 임도석(서원관)
최경수(영산사무소) 황주원(영광교구) 하상의(영산대학)

1. 교육순례훈련분과의 논의 범주

- 본 분과는 생태환경분과와 더불어 영산성지 공동체 구상에 관한 영산성지의 교육(훈련) 및 순례에 관하여 주로 의견을 나누었다.
- 보다 구체적인 공동체 구상 논의를 위하여 다음의 두세 가지 과제를 설정하였다.
 - * 그 하나는 새로운 인류의 문명비전과 삶의 양식을 포함하는 영성(선)센터의 개설을 통한 수행과 문명연구공동체로서의 역할이며,
 - * 또 하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의 운영기능을 통하여 전 교도(일반신자)들의 신앙(정신)의 뿌리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염두에 두었다.
- 두 번째 과제와 관련하여 출가 교무(특히 예비교무 교육과정)들의 성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순례를 통한 신앙과 수행의 필요가 부가적으로 논의되었다.

2. 공동체 논의 과정에 대한 우려

- 본 분과에서는 해당 주제의 논의에 앞서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혹여 과거와 같은 또 다른 개발사업과 전시행정 중심의 논의로 진전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였다.
- 이에 따라 많은 시간이 그 가능성의 차단에 할애되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공동체 논의 과정에 대한 우려

- 영산성지는 가급적 그 자체로서 보전되어야 한다.
- 특정한 유물과 유적의 보존방식보다는 생태적 보전 접근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자연환경 생태는 물론 인문 사회적 생태의 발굴과 보전까지도 성지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초창기 어려운 사정 속에서 보존과 복원 발굴, 개발이 끼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본 분과의 토론은 향후 성지 개발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한 점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며 영산 성지는 자연적, 인문 사회적 조건의 발굴과 복원을 통하여 보다 근원적이고 원대한 새 문명 발상 성지로서의 구상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기술하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도로를 개설하거나 자연 조건을 크게 변형시키는 등의 프로젝트는 신중한 검토를 기해야 하며, 교단적으로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사업이나 이미 유실된 회상 초기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복원 사업을 빙자한 난개발은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영산성지 일대에 대하여 경제적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생태 훼손의 접근은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2. 공동체 논의 과정에 대한 우려

- 영산 성지의 모든 구상과 기획은 시간적으로는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공간적으로는 교단 내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관점이 필요함을 본 분과토론은 여러 차례 확인하였음을 첨언해 둔다. 영산성지 공동체 사업 논의의 경우 역시 그 논의과정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크게 아쉬워하였으며 다만 현 교정원정책목표인 입장을 반영, 최대한 본 논의의 나름의 우려와 고민을 담아 이 결과물을 제출하였음도 차제에 지적해 둔다.
- 영산성지 공동체 운영 프로젝트의 경우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 본 논의 결과를 단순 반영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영산성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언할 연구기능의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성지에 소재한 영산대학 등은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뒷받침할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3. 영산 성지의 위상에 관한 의견 집약

- 룬비니나 붓다가야,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등이 석가 또는 예수가 가지는 인류의 문명사적 위상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 종교문명의 성지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 이런 이유로 후천개벽의 새 문명시대를 여는 주세성자로 오신 소태산의 탄생과 중생구원의 자비 행적으로 인하여 훗날 영산성지는 새 회상 원불교의 근원성지일 뿐만 아니라 후천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인류정신의 고향이며 모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영산성지에 관한 새로운 구상은 이와 같은 점을 늘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영산성지는 그 뜻이 한없이 거룩하고 광대하며 궁극의 근원에 맞닿아 있다. 근원의 진리(도)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고, 물욕으로 인한 문명도탄 위기의 절박함과 창생구원을 위하여 기쁘게 목숨을 버린 혈심의 창건 역사가 숨 쉬고 있고, 제생의세의 원력이 가득한 곳이다. 따라서 영산성지는 소태산의 주세불적 권능에 걸맞게 구상되어야 하고, 장차 모든 인류의 귀의처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꿈꾸어야 한다.

4. 본 분과 주제에 관한 의견 정리

선방 운영 방안의 의견집약

가. 영산성지는 대중사의 구도와 대각, 그리고 구인선진을 비롯한 초기 제자들과 함께 영산 방언과 법인 성사를 이루어낸 초기 교단사의 보물적 존재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선원을 개설하여 많은 재가출가 인재를 양성한 전통이 있으며 이는 지금도 영산선학대학교를 통해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영산대학교는 현재 전무출신 인재 전문 양성기관에 국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재가출가에 대한 새로운 입선 공부문화 풍토에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산성지가 일정부분 그 사명에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 상당 규모의 선방(문명센터)운영을 제안하였다. 재가를 중심으로 한 영산대학의 또 다른 외연인 셈이다.

나. 영산에 선방 운영의 주요 과정은 재래의 화두와 선정중심의 출가 승려를 위한 입선 문화와는 다른 관점에 서야 한다. 영산의 선방은 새로운 문명에 관한 탐색에 관심을 가지며 그 관심의 기초는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에 기초하여야 한다. 인생의 요도 사은 신앙과 공부의 요도 삼학병진 선 수행을 대 전제로 11과목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선방 운영 방안의 의견집약

- 다.전문입선인 제도를 수시 운영하되 일반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유입선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라.대중의 신망이 두텁고 교와 선을 아울러 문답, 감정, 해오할 수 있는 선지식과 지도교수진의 상주체제가 필요하다.
- 마.회상 초기 구인제자 훈련과 동하선과 영산선원의 핵심 전통을 복원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국제화하는 센터로서 육성한다. 영산성지의 핵은 여전히 소태산과 초기 제자들의 정신을 면면히 잇는 사람(인재)의 소중함이라는 생각의 기초에서 연유한다.
- 바.이곳에서의 선은 안으로는 도에 관한 궁극을 해명하고 밖으로는 모든 종교문명을 회통케 하며 새로운 인류문명의 가능성을 여는 적극적 의미의 센터를 자임해야 한다. 연차적으로 전문수행인, 지식인, 외국인 등 다양하고도 국제적인 문명센터로서의 선원을 지향한다.

성지순례 프로그램의 운용에 관한 의견 정리

- 가. 영산 성지의 순례는 교도의 성지순례와 비교도의 성지 방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도의 성지순례는 단순한 교단 초기 사적지에 대한 지식의 획득과 방문의 의미를 뛰어넘어 깊은 내면의 신앙체험(구도, 대각, 방언, 혈인, 거듭남 등)을 끌어내고 새로운 정신문명으로서 재생의세사명의 각성에 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 나. 성지를 찾는 비교도의 방문의 경우에도 새 회상 원불교 개교의 의미와 소태산의 깨달음과 권능, 그의 일생과 구인제자들과의 거룩한 행적, 원불교의 새 문명에 대한 구상과 열망을 전달할 수 있는 안내가 절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성지안내서와 시청각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영상시스템과 데이터의 준비가 필요하다.
- 다. 세부 프로그램의 예를 다양하게 준비하였으나 주로 교도방문자에 대하여 세부일정 짜기에 치우친 바가 있으므로 앞선 전제에 충실한 안내와 강의, 시청각물의 계발, 다양한 순례자 계층에 대한 내용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17개의 일정 및 코스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예비교무 초기교사 교육의 문제에 관한 의견 정리

가. 예비교무들의 교사 교육에 문제가 있음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다. 지적의 내용은 대체로 교육과정중 교사의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교사 1과목, 영산성지순례 1회) 그나마 교사에 대한 연구가 원불교학 내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다는 점도 아쉽게 지적되었다. 순례의 경우 역시 공공 안내 프로그램이 없으며,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안내자가 크게 부족하고, 처음 방문자가 아닌 순례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프로그램이 아쉬운 형편이다.

나. 교사 교육의 핵심은 정산종사의 창건사 서문에 기술하신 이른 바 회상육문(六問)의 기초이어야 한다. 시대와 문명 흐름에 대한 이해, 소태산의 깨달음과 권능에 대한 믿음, 새로운 문명세상에 대한 구상과 방안에 대하여 그 진면목을 이해함으로써 믿음을 일으키고 원력을 세워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비교무 초기교사와 영산성지 교육이 논의된 배경은 출가자의 성지에 대한 심도있는 인식의 변화없이 장차 미래의 성지에 대한 웅혼한 구상을 담보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기타 의견

가. 영산성지의 종합구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지 구상과 집행의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검토여지가 있으나 영산성지 공동체의 주요 내용들 가운데 본 분과의 과제 실현하기 위하여 영산선학대학이 그 집행의 주체가 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교단의 여러 여건과 현실 조건을 볼 때 대학의 명망과 교수진 등은 앞서의 제안을 감당하기에 그나마 우리가 적으며, 본 프로그램들의 과제에 대하여 일정한 설득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나. 영산선학대학은 지금과 같이 단순한 후진양성의 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교단 전체에 관하여 근본정신을 복원하고 면면히 계승하며 이를 전 세계에 교류하고 전파하는 적극적 교화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술연구, 국제교류, 선방(새 문명 센터)과 생태농업 등에 대하여 다양한 부속기관(혹은 인접기관)화 함으로서 영산대학과 성지구상의 실현에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발표3>

영산성지공동체 정관평 생태환경의 기본방향

발표자: 김 선 명 교무 (영산교당)

<분과위원>

김선명(영산교당 대표집필) 김성근(영산사무소)

남궁문(원광대) 임광제(만덕산훈련원) 한창민(원광대)

1. 길룡리에 생태 공동체의 방향은?

- 대중사님 당대의 모습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
- 교법정신이 현실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살아있는 성지
- 원불교의 정신을 체험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
- 영산성지 생태공동체의 방향은
 - * 길룡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형의 창출과,
 - * 정관평 권역에 생명을 살리는 자연 순환형 생태농업의 큰 줄기를 가지고,
 - * 원불교의 교법을 현실 속에서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실습장으로 추구

2. 길룡리 마을 공동체의 이해

1) 길룡리 영산성지의 어제와 오늘

<어제>

- * 길룡리는 원불교의 근원성지이자, 장차 세계인의 성지
- * 길룡리에서 출생, 발심, 구도, 대각, 교화의 장을 마련
- * 최초 제자들을 같은 고향 선, 후배와 친지 가운데서 얻음
- * 길룡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방언공사와 법인기도를 통하여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기초를 세움
- * 방언답 관리와 인재 양성을 위한 학원과 선원이 들어서 지역 청소년의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과 교역자 양성을 해 오면서 교단과 길룡리 주민들과는 한 가족처럼 지냄

1)길룡리 영산성지의 어제와 오늘

<오늘>

- *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변해 가는 사회현실에서 주민들의 정서적 욕구는 커져가고 이에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한 교단
- * 정관평의 삼분작 관계, 간이 전기시설과 간이상수도 사용 건 등의 문제로 한 가족처럼 지내던 유대관계가 해체되고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
- * 이후 교단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속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 * 정관평의 경우 등기상 소유는 원불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경작권)는 주민들에게 있는 경우가 많음
- *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정해체에 따른 결손가정 청소년문제,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의한 노동력 상실과 부양문제, 세대 간 갈등문제, WTO와 FTA 등으로 농촌경제의 암울한 미래 등 총체적인 문제들이 집합된 극명한 현실에 처함

2) 길룡리 1구 개요

(1) 마을분포

잠실, 영촌 구호, 범현 등 네 개의 자연 마을

(2) 마을별 현황과 주민분포 특징

- ① 총 43세대 97명의 주민이 생활
- ② 청소년 인구 18명 중 12명이 한 부모나 조부모와 생활
- ③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45명(46%)으로 초고령

(3) 주민생활

- ① 직업분포 : 상업과 직장에 다니는 3-4戶를 제외하고 농업에 종사
- ② 종교신앙 : 기독교에 다니는 2戶를 제외하면 원불교 교도
43戶 중 전무출신을 배출한 가정이 12戶
- ③ 농지현황 : 田畝의 비율이 40:60 정도이며, 대부분의 가구가 영세농
- ④ 경작형태 : 외지인과 원불교 소유의 농지를 임차 경작 + 자작(自作)
- ⑤ 작목현황 : 고추, 참깨, 콩, 쌀 위주이나
양돈(1戶)과 부추(2戶), 연초 5戶

*녹색연합(청장년)

삼발재 기슭에 복분자와 매실을 식재하고, 장뇌삼을 파종함.

(4) 주민 계층의 이해

① 네 개 마을 주민 간 유대관계는 느슨한 편

② 노인세대

- *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
- * 원불교와 愛憎의 감정이 있으나, 대부분 법회 출석교도
- * 오랜 농사일로 갖은 병고에 시달리는 경우
- * 5~10년 이내에 노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

③ 청장년 세대

- * 길룡리에 살지는 않으나, 친목을 위하여 가입, 작년 말 20여명
- * 금년 초에 이장 선출관계로 노인층과 심각한 갈등이 노출, 청장년회는 해체
- * 14명이 “녹색연합”이라는 작목반 형태의 새 조직을 만들었다.
- * 회장과 총무가 영산교당 금요야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원불교에 강한 불신과 반목을 나타내고 있는 청년도 있으며, 교화에 정성을 쏟아야 할 대상
- * 미래 농촌은 생태농업이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원불교와 연대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체험형 관광농업과 유기농에도 관심이 있음

④ 청소년 세대

- * 결손가정(아빠, 할머니 슬하)의 청소년이 67%를 차지
- * 기본적으로 심성은 착하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많음
- * 대부분 어린이 법회와 학생법회에 참석하고 있고, 방과 후 공부방에 참여함

3) 길릉리의 원불교 기관과 영산교당 현황

① 기관분포

영산사무소, 영산선학대학교, 영산성지고등학교, 영산교당

② 상호연대

고유의 업무가 있어 유기적인 연대와 협조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

③ 영산교당 교화전략

“일원회상 개벽의 증가”라는 자긍심을 가지며, 성지수호와 주인의 역할 강조

④ 영산교당 교화현황

- * 정례예회 - 매월 3 . 13 . 23일 (평균 5~60명 출석)
- * 수시법회 - 매주 금요일야회를 기도와 교리공부로 진행.(평균 10~15명 출석)
- * 마을(교화단) 법회 - 매월 5~7개 마을(평균 4~15명 정도 출석)
- * 청소년 법회 - 매주 어린이 . 학생법회 진행 (평균 각각 15, 10여명 참석)
- * 기도 - 월초기도(매월 1~3일), 보은기도(매월 15일)
- * 지역사회 봉공현황
 - 농한기 이용 - 어르신 한글교실, 건강요가교실 진행(2개월)
 - 방과 후 청소년 공부방 운영, 매월 1회 현장학습, 방학 중 청소년 캠프

3. “길룡리 마을 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길룡리 현실은 어떠한가?

- (1) 영세한 농업구조에 의한 소득증대의 한계로
청장년층의 불안한 현실
- (2) 46%에 이르는 고령인구(65세 이상)로
병약자가 많고 非文解者가 많은 편
- (3) 67%의 결손가정 청소년들은
학습 부진과 건전한 정서함양의 기회가 적은 편
- (4) 노장층과 청장년층의 갈등관계가 심각
- (5) 교도(신앙)와 주민(이해관계)의 이중구조를 가짐

2) 마을공동체 어떻게 이룰 것인가?

- (1) 길룡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정
- (2)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우선은 사무소에서 선도하는 유기농업을 성공시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듦
- (3) 현재 노장층과 청장년층의 갈등구조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노장층이 소외되지 않고 청장년층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민 상호 간의 신뢰 회복
- (4) 교단의 각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농어촌 복지모델을 창출

4. 생태 농업의 방향

- 1) 정관평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을 원칙으로 함(재생순환이라는 자연적 리듬에 맞는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
- 2) 생태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유기농업은 기존의 관행농업(화학비료와 농약)에 익숙한 주민들을 설득필요
- 3) 과거 정관평 유기농업의 평가와 반성(원기 80년 초반)
 - (1) 참여자들의 관심 및 적정 인원 규모(참여자의 관심)
 - (2) 기술력 확보(실질적 경험부족)
 - (3) 경제적 손실 보전책(흑미 재배로 보전)
 - (4) 소량 다품종 경영으로 경제성 확보(작업별, 시기별 수입별)
 - (5) 제초에 대한 프로그램(우렁이 오리농법)
 - (6) 충해 방제에 대한 프로그램(멸구피해)

4) 정관평 생태 농업의 시행 방안

(1) 영산 사무소 영농현황

① 농지현황

- * 논 : 1방언(120마지기 24,000평)
2방언(83마지기 16,600평)
- * 밭 : 20마지기(4,000평) - 일부는 마을주민 임대

② 시설 및 장비

* 시설

창고 2동 50평, 우사 1동 70평, 돈사 1동 80평
하우스 연동 600평, 퇴비사 1동 50평, 기계실 1동 20평

* 장비

트랙터 2대, 콤바인 1대, 이앙기 1대, 도정기 1대, 포크레인 1대
베일러 1대. 모아기 1대, 트럭 1대, 정비장구 다수 등

(2) 정관평 생태 농업의 시행 방안

① 생태 농업의 새로운 모델정립

- * 질 좋은 퇴비 확보
- * 다품목으로 작물의 유기재배(벼, 보리, 밀, 콩, 녹차, 포도 등)
- * 생산물을 가공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생산(콩→장류 등)
- * 생산과정에서의 잉여 부산물 등 바이오 메스로 에너지화

② 원불교 교법에 바탕한 생태적 생활정립

- * 초기공동체 생활 참조(이소성대, 이사병행, 영육쌍전, 무아봉공, 근검절약 등)
- * 정형화된 생활양식 연구(의, 식, 주 및 생활 수용구 등)
- * 신앙, 수행 프로그램 연구(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③ 통일농업의 실천

- * 자급식량 외 생산물을 북한 생산물과 교환(남측 미곡-북측 잡곡 교환)
- * 북한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자재 지원
- * 민족내부 거래로 한국 농업문제 활로 개척
- * 북한 교화의 거점 확보(교구별로 교류지역 확대)
- * 공동체의 연대감을 더욱 튼실히 함
(공동체의 성공은 구성원 간 지속적인 연대의식의 확대가 관건 임) - 제생의세 실현

④ 생태농업 체험장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고려

5. 유기농산물의 유통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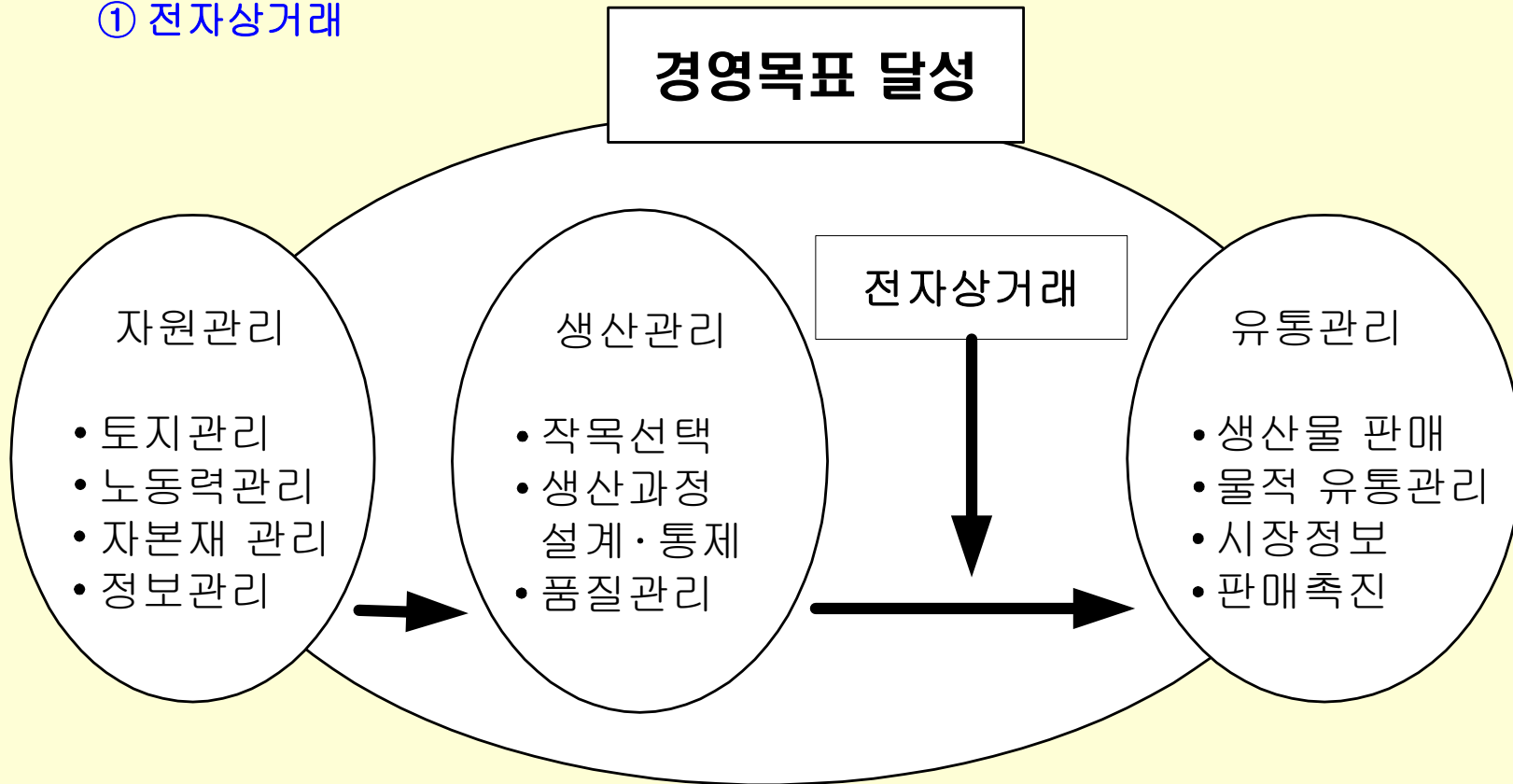
- ①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정되어 있음
- ② 이에, 영산공동체의 지정학적, 생산성 그리고 공동체의 개성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이 제안 되어야함

● 유통시스템 방향

- ① 산지의 고품질 상품생산
- ②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노력 증진
- ③ 상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함양
- ④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체계적·과학적 안전성 관리
- ⑤ 수요자 관리 시스템 강화 - 교화와 연결
- ⑥ 재배방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생산 이력제 실시
- ⑦ 영산성지 농산물 브랜드 개발
- ⑧ 장기적으로는 Food-Chain 산업과 연계

(3) 유통전략시스템

① 전자상거래



농업경영과 전자상거래

(3) 유통전략시스템

② 유통방식 다양화

생산물 종류

유통방식

유통방식 유형

A

—

가

- 소비자, 생산자 연결방법의 다양화
- 녹색관광 프로그램 연계

B

—

나

- 소비자 방문 생산
- 소비자 회원제 생산 및 유통

C

—

다

- 농장 회원제
-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유통거래

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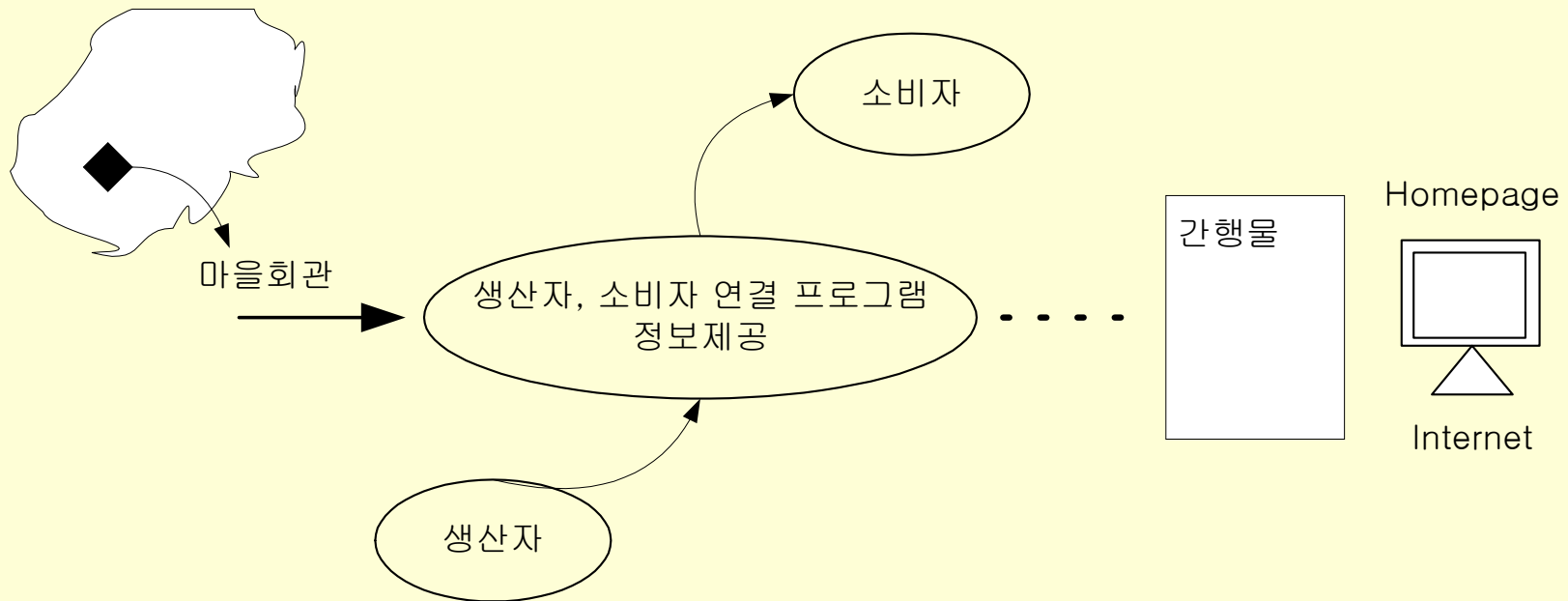
라

- 생산물 1차 가동 생산, 유통
- 기타

<생산물 유형별 유통방식의 다양화 및 유통방식의 대안 개념>

(3) 유통전략시스템

② 유통방식 다양화



<생산자.소비자 연결 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전략 개념도>

(4) 유통산업전략

● 1단계(조성기)

-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토지, 노동력, 자본재·정보 등)
-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작목선택, 생산과정, 품질관리 등)
- 소비자, 생산자 연결방식 개발 실시
- 소비자 방문 생산시도
- 농장 회원제 도입
- 홍보 전략수립 및 시행

(4) 유통산업전략

● 2단계(성숙기)

- 소비자, 생산자 연결방식 활성화
- 농장 회원제도 활성화
-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 소비자 회원제 생산 및 유통
- 녹색관광 Program 연계방안 구축 - 순례교육과 연결

(4) 유통산업전략

● 3단계(정착기)

- 소비자, 생산자 연계시스템 강화
- 다양한 홍보방식 실현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 녹색관광 및 체험 Program연계 활성화

6. 정관평 생태농업의 고려사항

- (1) 1방언 경작자인 주민들과의 관계
- (2) 2방언활용 문제(영산대학 수익재산)
- (3) 수익의 불확실성 문제(한시적 소득보전)
- (4) 생태공원화의 문제(체험의 장을 확보)

7.참고할 교단내 생태농업의 과거와 현재

- (1)군서 옥당영농회의 양계와 유기농 고추농사
- (2) 금평교당의 유기농 쌀, 고추, 축산
- (3) 성지고 유정란
- (4) 서울 한울안 생협
- (5) 진안 성수환경농업지구

<발표4>

영산성지공동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발표자: 한 창 민 교무 (원광대)



1. 조사방법

(1) 원기 90년 5월에

(2) 구조화된 설문지를

(3) 각 교당 및 기관에 발송하여 작성, 회송

(4) 총 1200부를 발송하여 391부 회송 받아 분석

2. 영산 성지 공동체의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설문

- (1) 영산사무소, 영산선학대학, 그리고 교당(구)의 공동생활 가능성:
40.4%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2) 형태로는 새벽과 밤시간을 공유하고 낮시간은 각자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선호하였다 (80.6%). 새벽부터 밤까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찬성하는 응답자도 13.0%나 있었다.
- (3) 공동생활 및 공동활동을 바람직하게 보는 입장은 39.1% 이고
- (4) 알뜰한 교도나 생태환경 전문가가 범현동 등지에 들어와 마을을 이루며 생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67.5%가 찬성을 하고, 14.5%만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3. 성지 순례에 대하여

(1) 가장 적합한 계절은 4-5월로 69.0%가 이 시기를 추천

(2) 성지순례에 적합한 계기로는 대각개교절로 59.8%가 이를 응답하였다

(3) 방언공사 체험장 설치에 대해 62.4%가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다

4. 유기농과 관련하여

- (1) 유기농을 찬성하는 비율은 90.8%로 압도적으로 이를 지지하였다
- (2) 교당이나 교도들에게 유기농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은 53.7%
- (3) 유통방법으로 선호되는 것은 택배로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59.3%가 지지하였다
- (4) 품목으로는 쌀이 52.4%, 콩이 14.8%, 그리고 야채가 16.1%이었다.

5. 성지의 개발 및 보전과 관련하여

(1) 보은강에 설치한 연꽃 방죽에 대해: 반대가 19.9%이었고, 찬성이 44.7%이었다

(2) 보존과 개발에 관하여 철저한 보존을 지지하는 입장은 15.9%이었고, 68.5%가 “보존을 원칙으로 한 제한된 범위 내의 개발”을 지지하였다

(3) 제3방언 방향으로 생태습지 조성에 대해 72.6%가 찬성을 하였다. 반대는 10.7%

(4) 보은강 연꽃 방죽을 넓히는 것에 대해 반대가 36.9%, 찬성이 40.9%로 팽팽하게 의견이 양분되었다.

(5) 주차장을 만들고 잔디밭을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성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67.0%가 찬성을 하였고, 14.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6. 영산에 상시 선방 운영?

- (1) 상시선방의 타당성에 대해 67.5%가 “타당성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11.8%만이 “없다”고 보았다
- (2) 상시 선방 운영은 1-2주씩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35.8%의 응답자들이 선호하였고, ‘상시로 열어 놓고 누구나 입선/해제를 각자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하는 응답자도 41.2%나 되었다.
- (3) 상시 선방 입선 의사는 77.0%가 “있다”고 응답을 하여 매우 호의적이었다.
- (4) 의사가 있더라도 하더라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실제적인 참여율은 낮을 수 있다. 그래서 현 직무를 고려하여 상시선방 입선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29.1%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 (5) 상시선방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침/밤에는 좌선, 염불 등의 수행중심, 낮에는 일을 하는 영육쌍전을 44.8%가 선호하였고, 좌선/행선 등 수행/연구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우는 18.9%, 그리고 각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선방 운영을 선호하는 입장은 33.5%이었다.



7. 법인 기도 운동에 대하여

(1) 법인 기도 운동에 대해 48.1%가 찬성을 하였고, 반대는 17.9%

(2) 작년 교화부에서 실시한 법인 기도 운동에 참여한 비율은 27.9%,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 평가는 87.2%가 “좋았다”고 반응하였다

8. 주민들과 어울려 이루는 생태 공동체에 대해

- (1) 실효성에 대해 49.1%가 응답을 하지 않았고, 35.5%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다.
- (2) 교도와 교역자가 마을을 이루며 사는 신앙 공동체 복원에 대해 42.2%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3)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경제, 교육 등)을 고려하여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입장이 34.3%나 되었다.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및
공청회